

조선일보 사원 여러분께

조선일보사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0월 6일자 주간조선에 실린 저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겠지요. 그리고 제가 그 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사와 사실을 접하고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전후하여 조선일보측은 또 다른 기사로 저와 당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당의 간부 몇 사람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를 공격하기 위한 또다른 기사가 준비중이라는 얘기도 전해들었고, 선거때문에 소송을 냈다는 말도 퍼져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일보사의 주요 간부들은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일개 정치인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를 건방지고 껄뽀한 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측의 저에 대한 태도가 후자와 같은 심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의 인식과 주장이 다를 때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이고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측이 진실에 대하여 저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저의 권리행사를 못마땅하게 보거나 무슨 힘겨루기로 인식하여 기사로서 저나 당을 공격한다면 막강한 매체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선일보측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전에 문제된 기사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일보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저보다는 동료 기자쪽을 더 신뢰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반드시 진실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일보사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음의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간부회의든, 편집회의든, 노동조합이나 사원 전원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에서든 여러분들이 마련한 자리에 저와 우종창 기자가 함께 참석하여 각자 자기 입장을 밝히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기사의 진위를 판단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그가 갖고 있는 인터뷰 녹음을 모두 풀어서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 개인적으로 공개하기가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우기자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취조하듯 질문을 했는지, 선거때 동원된 터무니없는 소문들까지 동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제 자신이 어떤 태도로 취재에 응했는지가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조선일보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이자 사원 전체의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조선일보사의 저에 대한 대응이 달라 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과 공정성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의 자존심 또한 그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송 당사자에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언론기관으로서 법률적 과정을 무시한 채 법정밖에서 매체를 통한 공격과 방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같은 제안이 또 한번 건방진 행위로 보이지 않을 지 두렵습니다. 저는 결코 조선일보와 힘겨루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쥐의 싸움만큼이나 제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관심은 오로지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막강한 매체에 의하여 부당한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 12. 12

노 무 현 드림